

#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

## Experiences of Permanency Planning Establishment by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심경순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Kyung-Soon Shim(ksshim@cup.ac.kr)

### 요약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주관적인 경험을 깊이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질적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독립취업 후 6개월이상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12명을 대상으로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주관적 경험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1월 11일부터 2011년 2월 10일까지 조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38개의 구성된 의미가 도출되었다. 이들 구성된 의미들을 유사한 내용으로 묶고 분류한 결과 17개의 주제와 7개의 주제묶음으로 범주화되었다.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으로 나타난 7개의 주제묶음은 안정적인 직업유지, 자기자신의 역량개발, 사회적 지지, 건강관리, 미래대비를 위한 인식갖기, 희망적인 사고,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정신장애인 | 평생계획수립 | 질적분석방법 |

###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research whose purpose is to analyze subjective experiences of permanency planning establishment by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selected 12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who have been maintaining their job for more than 6 months since they got it independently and then profoundly interviewed them to examine their subjective experiences in permanency planning establish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Jan. 11th to Feb. 10th, 2011. Statements by the participants were analyzed and, from which, 38 constructed meanings were obtained. Those meanings were group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similarities. As a result, they were finally categorized into 17 themes and 7 theme clusters.

Those 7 clusters included stable job maintenance, self-capacity development, social supports, health management, awareness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hopeful thinking and various social activiti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finally, the researcher suggested some practical implications.

■ keyword : |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Permanency Planning Establishment | Qualitative Analysis |

## 1. 서론

최근 정신장애인에 대한 개입은 병리적 접근의 병원이나 시설의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의 접근으로 변화되면서 정신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생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permanency planning)은 지역사회에서 일차적 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장애인을 보호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가족이나 전문가가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적합한 보호를 계획하는 과정이며, 부모 사후에도 정신장애인이 시설화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1]. 이러한 평생계획은 정신장애인이 사회에서 가능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준비과정이자 실제 생활의 이정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동시에 탈시설화와 생활의 질을 고려하는 정신장애인 복지개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병원과 시설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정신장애인에 대한 주 보호자의 걱정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신장애인의 보호자의 부재상황에서도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2].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신장애인에 대한 평생계획의 문제를 지역사회의 지방정부 및 기관 등이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적으로 가족들의 책임으로 파중환 부담과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신장애인의 70% 이상이 배우자가 없고 재가정신장애인이 20-40대임을 고려하면 이미 부양받아야 할 60대이상의 노인이 정신장애인에게 일차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만성정신장애인의 50-80% 정도가 그들의 노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신장애인의 부모가 느끼는 보호부담은 생애 초기에 진단이 내려지는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부모보다 보호부담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3]. 따라서 일차적 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정신장애인을 돌볼 수 없더라도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득보장, 주거보장 그리고 법적 보호에 대한 평생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정신장애인의 부모가 미처 평생계획을 준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갑작스런 치료나 보호비용 등으로 정신

장애인의 경제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다른 대안이 없는 한 다시 시설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4]. 부모 사후에 시설화된다는 것은 이전의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모든 정신사회재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생계획은 부모로 하여금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수행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부모사후에도 정신장애인들이 시설화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궁극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복지 이념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5]. 그러나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며, 따라서 연구 또한 미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평생계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신장애인에게 지역사회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누리면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고, 부모에게는 그들의 노년기 과업을 수행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 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노부모들이 더 이상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지적인 역할 수행이 힘들어지기 전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미래의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따라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스스로가 부모님 사후를 대비하여 자신의 노후에 대한 평생계획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구체적인 계획의 방법들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6]. 지금까지 보호제공자와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평생계획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다보니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자신의 평생계획수립에 배제되어 왔었다. 그러다보니 정신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재활과정에서 성공을 거두고 독립취업 후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연구의 질문은 정신장애인 자신의 평생계획수립을 위해 어떤 노력과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주관적인 경험을 깊이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질적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평생계획수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신의 장·단기 평생계획수립에

일차적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신보건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의 개념

외국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의 문제를 일차적 보호자인 가족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민간기관 및 지역사회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실행해나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 정신장애인 가족협회인 NAMI(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를 들 수 있다.

NAMI는 PLAN(Planned Lifetime Assistance Network)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PLAN은 정신장애인들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계획하려는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족이 운영주체가 되어 더 이상 가족들이 정신장애인을 보호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일상생활 기술훈련에서 위기관리, 재산관리, 지지적 주거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7].

이처럼 정신장애인을 위한 평생계획은 지속적인 의료체계와의 연결을 전제로 기본적인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충당할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독립적 혹은 지지적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가 보장되어야 하며, 판단능력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 까지 포함한다[5].

### 2.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장애인의 평생계획은 주거계획, 재정계획, 법적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수립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몇 편의 연구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1년 2월 성인후견제도가 민법개정안을 통과함으로써 향후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는 1970년대부터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에 대한 지원과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평생계획은 나라마다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있으며, 민감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평생계획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다루어진 주제는 주거계획이다. 부모의 노화에 따라 정신장애인이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주거 계획은 평생계획에 있어서 가장 짐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8-11].

성인 정신장애인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53%가 장애자녀의 주거계획으로 가족이 살던 집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75%가 비장애자녀와 거주를 원했으며, 그 외 주거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부모 중에서 83%가 지역사회 주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Heller et al[13]의 연구에서는 평생계획을 세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이 평생계획을 세우지 않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에서 가족의 지지가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 가족간의 정보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주로 상호작용하는 자조집단의 지지는 평생계획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부모의 노화와 관련된 변화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이용, 비장애 자녀로부터의 도움이 평생계획의 단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에 대한 인지된 욕구, 양육부담, 케어과업의 범위, 자녀의 장애수준, 어머니 자신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평생계획에 간접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서미경[3][15]의 연구가 있다. 2000년에 발표한 연구는 성인정신장애인에게 일차적 보호를 제공하는 부모가 사망이나 질병으로 더 이상 돌볼 상황이 아닐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결과로는 부모의 51%가 자신들이 더 이상 돌볼 수 없을 때 시설에 보낼 계획이라고 하였고, 형제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는 27.6%였다. 그러나 재산관리는 시설보다 형제나 믿을 만한 친척 혹은 은행 등을 선호하였고, 주요 의

논대상자는 가족이며, 국가나 전문가에게 바라는 서비스는 평생보호해 줄 시설이나 지역사회 내의 주거시설 마련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다. 또한 평생계획 정도의 예측요인으로는 가족의 경제력, 부모의 노화인식, 비장애 자녀의 도움이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평생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정신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정신장애인을 돌볼 수 없을 때 상당수가 시설 보호를 계획하고 있으며 실제 평생 보호해 줄 시설 마련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장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부모들이 시설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 확보와 생계보장이 선행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장애인복지는 달성하기 어렵고 이제까지의 사회적 재활을 위한 모든 임상적 노력은 상당수의 성인정신장애인이 시설화되면서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라고 강조하였다[3].

2006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성인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의 명확한 구분, 둘째, 재정적 계획을 위해 장애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기본적인 생계비용과 장애추가비용이 감당될 수 있도록 현실화되어야 하는 방법, 셋째, 주거계획에 있어서 지지적 주거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거나 뜻있는 후원자를 찾아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받는 방법, 넷째, 법적 보호 면에서는 장애인부모회가 요구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15].

홍순애[16]는 농어촌 지역 정신장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평생계획의 미수립 원인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능력이 높을수록, 보호자의 보호부담이 높을수록, 비장애 가족의 도움이 낮을수록 평생계획의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이웃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능력이 낮을수록, 비장애 가족의 도움이 많을수록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주보호자 15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주거와 재정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보호자의 나이와, 경제력이 주거계획과 재정계획필요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지지가 많을수록 가족들과 주거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는 정신장애인의 주거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족 경제 상태가 안정적이어야 함과 가족을 대상으로 주거계획과 재정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야 함을 명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보호자가 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고, 보호자가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비장애 형제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나 정신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비장애 자녀에게 부담을 준다고 여기고 있으며, 가족들의 보호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설보호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음으로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여옥[2]은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에 대한 정신보건전문가의 인식과 개입에 관해 연구를 하였다. 정신보건전문가들은 평생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평생계획에 대한 정신장애인 및 가족과의 상담경험이 낮은 것으로, 업무에서도 평생계획에 대한 비중 역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 수립 시 고려할 내용으로는 지속적인 치료계획, 주거계획, 등록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획,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여부, 신체질환의 치료계획, 평생계획 수립시 형제 및 친인적의 참여, 여가활동, 법적 후견인 지정, 교육, 종교활동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부산경남 지부세미나에서 ‘정신장애인 평생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에서 서미경[5]은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을 위해 전문가의 입장에서 몇가지 제언을 하였다. 평생계획에 대한 소비자집단과 전문가 집단의 의식의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주거계획과 재정적 계획, 법적 계획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평생계획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상원[6]은 관련법규의 제정과 주거를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고찰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족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에 대한 본인당사자의 인식이나 견해를 조사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무엇보다도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평생계획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준비를 해나가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신사회재활의 효과를 검증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삶의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주체자로서의 평생계획 수립을 위한 경험을 밝혀냄으로써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정신보건관련 기관에서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난 후 독립취업으로 6개월이상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으로 선정하였다.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어야만 재정계획과 주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직업유지기간을 6개월이상으로 정한 것은 정신장애인이 독립취업을 6개월이상 유지하기가 힘들며, 1개월 이내에 중도탈락하는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18-20]. 그러므로 6개월이상 직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작업수행에 대한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실제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직업유지 평균기간은 2년 1개월이며, 직업유지기간이 가장 긴 참여자는 5년 8개월이며, 가장 낮은 직업유지기간은 9개월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별	나이	진단명	직업유지기간
1	남	47	기분장애	1년 3개월
2	남	29	기분장애	1년
3	남	34	정신분열병	1년 5개월
4	여	43	정신분열병	1년 3개월
5	여	56	정신분열병	2년 6개월
6	남	39	정신분열병	5년 8개월
7	여	42	분열정동	1년 4개월
8	남	54	정신분열병	3년
9	여	29	정신분열병	1년 9개월
10	남	36	정신분열병	3년 2개월
11	여	33	정신분열병	9개월
12	여	35	정신분열병	2년 6개월

#### 2. 자료수집

참여자들의 인터뷰 기간은 2011년 1월 11일부터 2011년 2월 10일까지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시간과 장소는 정신보건전문가가 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였고, 참여자가 이동하기 편한 장소나 이용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참여자 선정은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전문가와 전화로 접촉하여 참여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을 알아본 후 본인이 직접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한하여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인터뷰 장소는 참여자가 활동했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횟수는 참여자별로 1-2회 실시하였으며,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고 심층인터뷰로 진행하였다. 1회 인터뷰에서 소요된 시간은 1시간내외였다. 그리고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은 추가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질문은 ‘평생계획을 위한 자신의 노력과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연구자가 제시한 개방형질문을 보면서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참여자의 진술을 따라가며 다양한 후속 질문을 사용하여 참여자로부터 생생한 경험을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참여자의 표정이나 어조 등 상황적 특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현장노트에 기록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자료출처를 다양화하고 분석을 풍부하게 하고자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인터뷰한 자료를 필

사한 후 필사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 번을 읽으면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다시 참여자와 이차 인터뷰에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더 이상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자료 수집을 중단하였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 절차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진술에서 어조나 억양 등을 통해 전달되는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녹음테이프를 들으며 필사본을 반복하여 읽었다. 읽으면서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진술부분에 밑줄을 그으면서 그 의미를 탐구하였다. 둘째, 직업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지와 경험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찾아내었다. 셋째, 추출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에 대한 주제를 파악하고 비슷한 속성으로 분류하여 주제 묶음으로 도출하여 각 참여자에게 나온 현상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넷째, 이상의 전 과정동안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과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 결과를 질적 연구경험이 풍부한 정신보건전문가 3인으로 하여금 원자료와 분석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수집부터 분석, 기술하는 연구의 전과정에 걸쳐 선이해, 가정, 편견 등을 배제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 4. 윤리적 고려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본 연구자는 참여자들로부터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연구수행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개별인터뷰의 동의를 얻었다. 개별 심층인터뷰한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된 테이프와 기록은 연구 종료 후 반드시 파기하기로 약속하였다. 인터뷰내용은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연구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렸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용문이나 본문에서 참여자의 신상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자료 혹은 표시는 삽입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참여의 동의를 얻었다.

## IV. 연구 결과

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을 파악한 결과 의미 있는 진술은 약 60개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연구자가 구성한 의미는 38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의미있는 구성을 통해 17개의 주제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의미 있는 경험으로 안정적인 직업유지, 자기자신의 역량개발, 사회적 지지, 건강관리, 미래대비를 위한 인식갖기, 희망적인 사고,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7개의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안정적인 직업유지

#### 1.1 계속적으로 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안정적이며 계속적인 직업활동이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중요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직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독립과 함께 자신의 평생계획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부족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노후를 위해서 일을 계속 해나가야겠지요. (참여자 3, 4, 5, 7, 8, 10, 12)

정부에서 주는 돈만으로 의지하면서 살수 없잖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것이 내 건강을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이 20만 원정도니까 정부에서 받은 돈 44만원하고 합치면 60만 원정도가 되지... 그 돈이면 현실적으로 부족하지만 혼자 먹고 사는데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지... (참여자 1)

## 2. 자기자신의 역량개발

### 2.1 자기에게 맞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참여자들은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으로 자신에게 맞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자신이 원하는 기술을 배운다든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과 학습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참여자들 중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술습득의 계획을 세운 후 실천해나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예전에 삼성 에스디아이에서 기계를 다루고 하다보니깐 한번 기술을 배우고 나면 퇴사이후에도 그 기술이 활용되더라구요. 기술훈련원같은 곳에 가서 기술을 배우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찢리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웃음).. (참여자 4)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커피가게를 운영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커피를 맛있게 뽑아내고, 추출해낼 수 있는 이 가게에서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손님들한테 아메리카노든, 라떼 든 자신감있게 내놓을 수 있는 나만의 능력을 개발해나가도록 더 기술을 배워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참여자 9)

### 2.2 자격증이 있어요.

참여자들은 자격증 취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소지한 자격증의 유형에는 조리사, 컴퓨터관련, 노인요양보호사, 한식·양식조리사, 바리타스 등의 자격증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 중에는 유관업종의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한 참여자들도 많았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뭐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했어요. 한달간 교육받고 자격증을 받았어요. (참여자 7)

바리타스 자격증을 땀어요.. 장애인직업능력원에서 바리타스 과정을 밟아서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그 후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바리스타 같은 자격증은 그 자격증

으로 내가 앞으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거라 생각해요. (참여자 9)

자격증이 있어요. 한식, 양식 자격증을 땀어요. 너무 힘들게 땀어요. (참여자 11)

### 2.3 밥은 엄마보다 제가 더 잘해요.

참여자들은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으로 독립생활 기술을 잘 습득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가사일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가족과의 역할분담을 하면서 집안일을 거들거나 배워나가고 있었다.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독립생활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청소, 설거지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참여자 3)

집안일은 엄마와 제가 분담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 살때를 대비하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밥은 엄마보다 제가 더 잘한다고 저보고 밥하라고 해요. 설거지, 빨래, 청소 등도 분담은 하고 있고, 불편한 점은 없어요. (참여자 4)

독립해서 혼자지내고 있는데, 밥해먹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고요... 외로워서 그렇지, 그것 빼고 다 좋아요. 아프면 안되니까 밥도 더 잘 챙겨먹게 되고, 청소도 자주 하게 되요. (참여자 6)

## 3. 사회적 지지

### 3.1 가족이 저를 많이 이해해줘요.

참여자들은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으로 가족의 원만한 지지를 진술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가족과 많은 대화를 나누거나 의논상태로 인식하고 있었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따로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저를 잘 이해해주시고, 저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따뜻하게 잘 보살펴주십니다. (참여자 3, 4)

저는 부모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형님과 자주 의논합니다. (참여자 6)

혼자살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언니가 살고 있어요. 언니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만의 공간이 있으니 좋아요.. (참여자 9)

### 3.2 고민이 있을 때 선생님과 의논해요.

참여자들은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중요한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독립취업으로 자신이 정신보건관련기관에서 활동하지 않아도 휴일이거나 근무가 없는 날에는 정신보건기관을 방문하거나 취업회원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가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약물조절이나 직장내의 어려움과 고충을 전문가와 의논하면서 원만한 관계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사선생님이 약을 잘 조절해주고 있고, 어떨때는 OO의 선생님이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약물조절을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어서 정말 좋아요. (참여자 5)

고민이 있을 때는 주로 여기 선생님들이랑 의논해요. (참여자 6, 7)

### 3.3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참여자들은 직장내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직장내에서 동료와 상사로부터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직업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평생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내가 배운게 배만드는 기술이니까 그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8)

사장님이 제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근무시간도 조절해주고, 나에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니까 일하기도 편하고... 이 직장에서 18개월 정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0)

그쪽에서 저를 잘 보셔서 자리가 있으면 저를 옮겨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기

분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참여자 12)

### 3.4 나를 위로해주는 좋은 사람이 옆에 많이 있어요.

참여자들은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으로 대인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도 주위의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와 관계형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랜 투병과정속에서 대인관계의 소원함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주위에 의지할 수 있는 많은 친구와 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의 필요성을 진술하였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 노후는 좀 더 따뜻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참여자 5, 6, 7)

살면서 외롭지 않게 친구나 지인들을 많이 사귀야 하고, 나이들어도 혼자서 외롭지 않도록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지요. 가까이에서 의지할 수 있는 지인들이 많아야 되지요... (참여자 11, 12)

## 4. 건강관리

### 4.1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건강관리를 잘 해요.

참여자들은 성공적인 자신의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으로 약물증상관리의 중요성을 진술하였다. 특히 약물조절의 실패와 재발의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일수록 약물복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약은 잘 먹어야되요. 형님이 약을 먹지 말라고 해서 약을 안먹었더니 12월경에 기분이 다운되고 예민해지더라고요. 마음도 위축되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형님이 약 끊으면 안되겠다. 약 잘 챙겨먹어라 하더라고요.. (참여자 6)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몸이 안 아파야 하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돈도 저절로 벌게 되잖아요. (참여자 8)



#### 4.2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아요.

참여자들은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진술했었다. 즉, 단조롭고, 틀에 박힌 생활을 탈피하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가 몸으로 하는 거니까 건강관리를 잘 해나가야 하는거고... 무슨 일이든지 몸과 마음이 따라주어야 되는건데... 특히 우리같은 사람들은 정신과 육체의 발란스를 잘 맞춰주어야 하니까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요. (참여자 1)

틀에 박힌 생활이지만 게을러지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참여자 4, 8)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건강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참여자 9)

#### 4.3 욕하는 성격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참여자들은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진술했었다. 특히 직장내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 합리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내가 일을 계속 하면서 돈을 모으고 내 노후를 준비하려면 우선적으로 불특정성질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욕하는 성질이 있어서...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일은 많이 해왔는데,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한 이유가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었던거 같아요... 직장생활도 꾸준히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는 이유가 사람과의 갈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참여자 7)

### 5. 미래대비를 위한 인식갖기

#### 5.1 노후설계는 목표를 세워야 이룰 수 있어요.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노후설계를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0년 뒤, 20년 뒤 자신의 노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장애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0년 뒤에는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식당이나 레스토랑같은 것을 운영하고 싶어요. 내가 그런 만화도 전시해놓고.. (참여자 2)

10년 정도 돈을 벌어서 10년뒤에는 제가 직접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커피가게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고객을 감동시키는 그런 장사를 하고 싶고요... (참여자 9)

제 목표는 45살까지 1억 5천정도 모으는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여자 10)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구체적인 자신의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5, 8)

#### 5.2 돈이 생길때마다 꼬박꼬박 저축을 해요.

참여자들은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으로 저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평생계획수립은 경제력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저축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연금저축, 주택부금, 일반적금, 보통예금 등 다양한 형태의 저축을 실천하고 있었으며, 많은 금액의 목돈을 모은 참여자들도 여러 명 있었다.

연금 10만원, 일반적금 60만원으로 70만원을 저금하고 있어요. 연금은 65살까지 넣어야 하는데, 그만 넣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참여자 5)

돈이 생길때마다 꼬박꼬박 돈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연금은 회사생활할 때 가입했는데, 지금까지 넣고 있는데 60살되면 나옵니다. (참여자 6)

매달 저금 60만원하고 있어요.. 10만원은 5년, 30만원, 20만원은 따로 하면서 10년 후에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참여자 9)

97만원 중에서 적금 2개를 들고 있어요. 합쳐서 50만원 인데.. 1년까지 적금인데, 이거 끝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참여자 12)

## 6. 희망적인 사고

### 6.1 힘들어도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요.

참여자들은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과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현재 상태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생활하고 있는 참여자도 있었다.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들을 잘 견뎌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미래도 지금처럼 노력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미래도 희망적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들을 이 병을 앓고 있는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참여자 10)

예전에는 안된다고 포기를 해버렸다면 이제부터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격증 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많이 했어요. 손놀림도 어눌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엄마와 많이 싸웠어요. 내 생애 자격증이란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해내었구나 하는 뿌듯함과 자신감이 생겨서 좋아요. (참여자 11)

일기를 쓰고,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이유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힘이 나고, 다시는 예전의 안좋았던 시절을 밝기 싫고... 나름대로 자극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되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나에게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자 10)

### 6.2 우리같은 사람은 여유를 가져야 되요.

참여자들은 삶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술하였다.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으로 삶의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해나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삶의 여유속에서 서두르지 않은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려고 노력해요.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하루하루를 욕심없이 잘 살아가는게 중요해요.... (참여자 4)

우리같은 사람은 여유를 가져야 되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긴 인생여정을 더디고, 느리게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것 같습니다.. 책도 읽으면서 문화생활도 하면서 또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도 남들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야죠. (참여자 7)

## 7. 다양한 사회활동

### 7.1 동호회활동도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들은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으로 동호회 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동호회활동은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다양한 자조모임활동이다. 참여자들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정신장애인과 자조적인 모임의 필요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제가 올해 취업한 회원분들을 한달에 한번씩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모임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총무를 맡았는데, 이 모임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OO에서 활동하신 분들 중에서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우리끼리 동호회를 결성해서 자조적인 모임으로 만들어갈려고 합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동호회 활동도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10)

### 7.2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들은 종교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종교적 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과 자신의 심리적 안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평생계

획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으로 여가활동과 자신의 병을 치유해나가고 수용해나가는 과정으로서 종교적 활동이 새로운 인식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로서 해결하려고 해요. (참여자 6)

종교생활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건강도 주고, 정신적 편안함도 주고, 힘들 때는 성당에 가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 잘못도 뉘우치게 되고, 건강해지는 것 같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5, 7, 8, 12)

## V. 결론

### 1. 분석결과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주관적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분석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38개의 구성된 의미가 도출되었다. 이들 구성된 의미들을 유사한 내용으로 묶고 분류한 결과 17개의 주제와 7개의 주제묶음으로 범주화되었으며,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공통적 속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안정적인 직업유지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으로 지속적인 직업활동을 가장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직업유지는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경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자기자신의 역량개발이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으로 자신의 노후에 활용가능한 기술을 배워야 하거나 자격증 취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노후의 계획으로 자신이 원하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기술습득이나 많은 자격증을 보유하

는 것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경제적인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격증취득이나 기술습득을 위해서도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으로 일상생활기술 습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사망이후에는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으로 집안청소, 빨래 등 개인 위생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중요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평생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서미경[15]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가족의 입장과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입장 차이에서 오는 부분으로 앞으로 평생계획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라 하겠다.

셋째, 사회적 지지이다. 이는 평생계획정도의 예측요인으로 가족의 지지와 비장애 자녀의 도움이 중요하며, 비장애 가족의 도움이 많을수록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다는 연구결과 Heller et al[13], 홍순애[16]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가족의 지지는 정신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직업유지의 성공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이미 입증되었다. 또한 평생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긴밀한 관계유지가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평생계획 수립에 있어서 전문가의 지지가 많을수록 가족들과 평생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 서미경[3], Bostford[4], 이상원[6], 홍인숙[17], Krasowski[21], 나봉균[2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가족의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독립취업 후에도 직장내의 위기적인 상황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넷째, 건강관리이다. 도여옥[2]의 연구에서와 같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계획이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 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특히 참여자들은 스트레스가 질병의 재발과 연관이 있음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나가는가에 따라 노

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정신보건전문가들에게 정신장애인의 스트레스관리를 어떻게 적용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해주는 시사점이라 하겠다.

다섯째, 미래대비를 위한 인식갯기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인식을 이른 나이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50대의 참여자는 자신의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인터뷰에서 노후 준비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른 장애인이 자신과 같은 전처를 밟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진술한 참여자도 있었다. 정신장애인에게 자신의 평생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시켜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희망적인 사고이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질병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는 평생계획수립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병에 대한 수용과 함께 장기적인 투병과정에서 가져야 할 요인으로 여유와 도전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의 평생계획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장애인들과의 자조적인 모임의 필요성을 중요시 여기며, 정서적 지지와 다양한 정보공유를 통한 자치적인 활동이 평생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종교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과 자신의 심리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기도를 하거나 성경공부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해나가고 있었다.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 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으로 여가활동과 종교활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도여옥[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은 안정적인 직업, 교육, 부모·형제자매·전문가의 사회적 지지, 건강관리, 여가활동, 종교활동 등이 성공적인 평생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2. 실천적 함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수립의 일환으로 평생계획에 대한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평생계획수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에게 자신의 평생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재정계획과 주거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현시켜나가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약물·증상자가관리를 포함하여, 일상생활 기술 및 독립생활기술, 의사소통기술을 포함한 사회기술훈련, 직업재활, 다양한 여가활동, 특히 정신적인 안정과 심리적 치유과정으로서의 종교적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정신장애인 역시 지역사회중심에서 삶의 지향성과 사회통합의 원칙적 기조속에서 자신의 삶을 구상해나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약물증상관리, 병에 대한 기본적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대상자가 욕구사정을 통해 단기·장기적인 평생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재활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저축의 중요성과 실천방법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신의 경제관념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자신에게 적합한 실천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나간다면 평생계획수립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생계획수립의 필수조건으로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장내의 대인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인관계훈련, 스트레스관리,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독립취업한 회원들이 사회적 지지체계속에서 활발한 문화체험과 다양한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서로 동료애를 느끼고, 고립과 단절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교류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자들은 기관에서 연계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교육과정 중에서 제과제빵, 바리스타, 한·일·

양식 조리사, 컴퓨터관련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활발한 연계를 통해 자격증 취득에 욕구가 높은 정신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취업관련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여자들 대부분은 평생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직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해나갈 때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직업재활의 성공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장기적인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개발·확대시켜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직업재활에 성공한 정신장애인들의 평생계획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시범적으로 확대시켜나아가야 할 것이다. 성공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면서 정신장애인들의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저변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인들간의 동호회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정서적 지지와 자신의 경험담을 서로 공유하며 동료애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한다. 또한 평생계획수립의 성공적인 과정을 발표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나간다면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수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학회와 협회차원에서 정신보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평생계획수립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나아가야 할 것이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지역사회정신보건정책의 주축으로 자리잡은 지 15년이 지났지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환경적 개선은 나아진 것이 없다.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거, 의료, 경제적 지원 등 많은 자원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을 위한 통합적 관리는 지역사회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사회적 비용부담의 경감과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 재활가능성 등 통합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2011년 2월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지원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망 후 남겨질 정신장애인에 대한 염려와 형제자매의 보호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신보건전문가는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실천적 개입의 방향성과 논의를 구체적으로 전개해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속에서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주관적 경험을 탐색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실천적 접근과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질적 연구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평생계획을 재정적, 주거적, 법적계획으로 분류하지 않고, 참여자들이 진술하는 진술문을 토대로 분석한 것도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평생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평생계획수립을 위한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수립을 재정적, 주거적, 법적계획으로 세분화해서 평생계획수립요인을 밝혀나가는 활발한 작업으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1] R. Lisa, "Overview on permanency planning", <http://www.aaatc.org/man11.htm>
- [2] 도여옥,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에 대한 정신보건 전문가의 인식과 개입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3] 서미경, "성인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3권, pp.106-130, 2000.
- [4] L. A. Bostford and D. Rule, "Evaluation of a Group Intervention to Assist Aging Parents with Permanency Planning for an Adult Offspring with Special Needs," *Social Work*, Vol.49, No.3, pp.423-431, 2004.

- [5] 서미경, “정신장애인 평생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부산경남지부 세미나, pp.1-8, 2009.
- [6] 우상원, “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에 대한 실천적 접근”,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부산경남지부 세미나, pp.12-31, 2009.
- [7] NAMI, PLAN(Planned Lifetime Assistance Network), <http://www.nami.org/PrinterTemplate.cfm?Template=/ContentManager>
- [8] L. Baker and J. Blacher, “Out of home placement for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Dimensions of family involvement,” J. of Mental Retardation, Vol.98, pp.368-377, 1993.
- [9] D. Cole and L. Meyer, “Impact of needs and resources on family plans to seek out-of-home placement,” J. of Mental Retardation, Vol.93, No.4, pp.380-387, 1989.
- [10] B. Sherman, “Predictors of the decision to place developmentally disabled family members in residential care,” J. of Mental Retardation, Vol.92, No.4, pp.344-351, 1988.
- [11] M. Tausig, “Factors in family decision-making about placement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individuals,” J. of Mental Retardation, Vol.89, No.4, pp.352-361, 1985.
- [12] T. Heller and A. Factor, “Permanency Planning for Adult with Mental Retardation Disabilities in Lanark Conty,” Master Degree, Queen’s University, 1991.
- [13] T. Heller, K. Hsieh, and L. Rowitz, “Grandparents as supports to mothers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Vol.33, No.4, pp.23-34, 2000.
- [14] G. C. Smith, R. A. Majeski, and B. McClenny, “Psychoeducational support groups for aging parents: development and preliminary outcomes,” J. of Mental Retardation, Vol.34, No.3, pp.172-181, 1996.
- [15] 서미경, “성인정신장애인의 평생계획모형 : 뉴질랜드 정신보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pp.33-56, 2006.
- [16] 홍순애, *놓어준 정신적 장애인의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17] 홍인숙, *정신장애인의 주거계획과 재정계획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18] 최희수, *정신분열병 환자의 직업재활 성과의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19] 김용진, “정신장애와 직업재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어떻게 할 것인가?”, 송국클럽하우스 직업재활 workshop 자료집, 2000.
- [20] 심경순, *정신분열병 환자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21] J. K. Krasowski, “Permanency planning by parent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Lanark County,” Canada, Queen’s University at Kingston, 1996.
- [22] 나봉관,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계획에 관한 요인의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저 자 소 개

심 경 순(Kyung-Soon Shim)

정회원



▪ 2002년 9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정신보건, 장애인복지